

트럼프 “내달 부과 EU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기습 경고’ 이틀만 또 입장 바뀌
“러시아 추가 제재 확대 고려”
“이란과 협상 매우, 매우 좋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50% 관세’를 7월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소재 자신의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와서 ‘6월1일’이라는 날짜를 미루길 요청했다”며 “그녀는 진지한 협상을 원한다고 했다”고 밝힌 뒤 EU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6월1일에서 7월9일로 옮기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달 각국에 대해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90일)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20% (기본관세 10%+가 경제주체별 차등관세 10%)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과 EU간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했

다.

그로부터 이틀만인 이날 이뤄진 미국과 EU정상 간 통화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답했다.

그는 “나는 푸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놀랐지냈다”고 밝힌 뒤 “그러나 그는 도시에 로켓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나는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과 이란간 최신 협상(23일 로마에서 개최)에 대해 “매우, 매우 좋았다”며 “일부 진정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왜 하버드는 학생의 약 31%가 외국 땅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라며 “그 나라(하버드 대 외국인 학생들의 소속 국가) 중 일부는 전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관세’를 7월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23일 밝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에 대해 “그것(US스틸)은 미국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산업에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투자를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달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분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재건 구상에 대해 “우리는 운동화, T셔츠, 양말 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탱크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반도체 등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 정부 ‘반값 비축미’ 구매업자 모집

“내달 초 슈퍼서 판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댄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 비축미를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할 소매업자 모집을 시작한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26일 비축미를 기존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방출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구체적인 판매 물량과 방식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산 쌀 20만t, 2021년산 쌀 10만t을 합한 30만t을 60kg당 1만700엔(약 10만2천원)에 판매한다. 이전 입찰 방식 판매가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격으로, 세금을 더할 경우 1만1,556엔(약 11만원)이 된다.

정부는 소매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비축미를 운송해 준다. 다만 정미 비용은 소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낙찰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같은 양을 국가에 다시 제공한다는 조건을 없애 사업자의 구매 부담을 줄였다.

농림수산성은 이날부터 매일 구매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대상은 연간 쌀 1만t 이상을 취급하는 대형 소매업자다. 비축미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업체에도 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비축미 구매 신청이 30만t을 웃돌 경우 방출량을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두 배 수준으로 댄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 비축미를 공급한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강풍·폭우...20명 사망·150명 부상

파키스탄 전역을 덮친 강풍과 폭우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여객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6일(현지시간) 인도 뉴스채널 인디아TV와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재난관리청(NDMA)은 최근 강한 돌풍과 폭우로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20명이 숨지고 150명 넘게 다쳤다고 전달 밝혔다.

인명 피해는 지난 24일 동부 펀자브주를 비롯해 북서부 카이버파크툽크와주와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지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펀자브주에서만 라왈핀디, 제헬름, 셰이크우푸라 등지에서 모두 12명이 숨졌다고 EFE 통신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지붕이나 벽에 깔려 숨지거나 벽락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카라치에서 동부 펀자브주 라호르로 향하던 민간 항공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회항했다.

당시 탑에 질린 승객들이 울며 기도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연합뉴스

교황, 로마 주교좌 착좌식...“중 신자들 위해 기도” 언급

레오 14세 교황이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로마 주교좌에 앉는 착좌식을 거행했다.

착좌식은 세계 교회의 수장인 동시에 전 세계 가톨릭의 본산인 로마 교구의 교구장인 교황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예식이다.

라테라노 대성전은 로마 교구의 주교좌 성당으로, 로마에 있는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지금도 ‘모든 성당의 어머니이자 으뜸’으로 대접받는다. 교황이 선출됐을 때 즉위식을 한 교황은 규정된 예식에 따라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로마 교구장으로서 착좌식을 갖는다.

착좌식에 앞서 교황은 로마 시청이 위치한 캄피도리오 언덕에서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을 만나 환영을 받았다.

구알티에리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제 로마는 당신의 도시”라며 “로마는 도시 곳곳의 고통과 사회적 주변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은 “로마 시민 모두를 섬기는 무겁지만, 설레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는 로마 인입니다”라고 말해 현장에 모인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착좌식을 마친 뒤 레오 14세 교황은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안장된 로마 시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이동해 ‘로마 백성의 구원’으로 불리는 성모 성화를 경배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로마 주교좌 착좌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교황은 가톨릭의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5월 24일)을 계기로 중국의 가톨릭 신앙을 위해 기도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정오 강복 메시지를 통해 전날이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다고 언급하고,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

이 교황청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교황은 “중국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그들의 보편 교회와의 친교에 대한 간구와 애정의 표시로서 이날 중국과 전 세계의 교회와 성지에서 기도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주먹질·발길질’ 중국서 세계 첫 로봇격투대회

사람 동작 모방...상당수 외피 파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끼리 맞붙는 세계 첫 격투 대회가 열렸다. 26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전날 동부 저장성 항저우에서 CCTV 등이 소속된 국영 미디어회사 중국중앙방송총국(CMG·차이나미디어그룹)이 주최한 ‘CMG 세계 로봇 대회’가 열렸다. 중국 로봇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유니트리(위수커지)는 대회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독·단체 시범을 펼치는 공연 부문과 4개 팀이 실시간 제

어 격투를 벌여 승자를 가리는 경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격투 부문은 각기 다른 분야의 비전문가인 인플루언서 4명이 조종한 유니트리 G1 로봇들이 3라운드(1라운드는 2분)씩 경기를 치렀다.

G1은 유니트리가 작년 출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신장 1.3m 안팎에 체중은 35kg이다.

링 안에서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한 휴머노이드들이 인간의 이종격투기 시합처럼 맞붙었고, 링 바깥의 인플루언서들이 조종기로 로봇을 움직였다. 머리와 몸통에 타격이 들어가면 득점이 인정되는데 손을 활용한 유효타는 1점,

다리를 이용한 유효타는 3점으로 계산됐다.

인간 심판의 경기 개시 선언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휴머노이드들은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내지르거나 무릎 공격, 옆차기, 앞차기 등으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사람의 동작을 모방한 싸움이 이어지면서 둔탁한 타격음이 순식간에 장내를 채웠다.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보호한 채 걸음을 앞뒤로 반복하며 공격 기회를 노렸고, 쓰러진 뒤에는 심판이 10초를 다 세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 격투 자세를 다시 잡았다.

경기에 나선 로봇 상당수가 금속 외피 파손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생중계 진행자는 이 대회가 ‘과학 보급·전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으며 현장과 중계를 통해 경기를 지켜본 관중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놀라움을 쏟아냈다. 연합뉴스